

2010. 7

July

| 광 | 학 | 단 | 신 |

회원사 동정

이달의 신규회원사-정회원(2개 사)

(주)기선

- 대표 : 김춘학
- 전화 : (031)915-8336
- 팩스 : (031)915-8337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585-1
- 홈페이지 : www.kisunuv.com
- 주요 품목 : UV코팅기, 디지바인더

플러스젯

- 대표 : 정석희
- 전화 : (02)842-2007
- 팩스 : (02)846-1911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89-4
- 홈페이지 : www.plusjet.co.kr
- 주요 품목 : 제분기

(주)뷰웍스

첨단 광학 영상기술 전문기업으로 도약

의료용 디지털 영상장비 업체인 뷰웍스(대표·김후식)는 자사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 카메라의 총 누적 판매 대수가 6월 현재 15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뷰웍스는 올해 산업용 카메라 사업부에서만 총 9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의료 영상장비 기술을 응용, 산업용 카메라를 개발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뷰웍스는 현재 삼성과 LG 등 반도체와 LCD 생산업체에 공정 검사장비용 산업용카메라를 공급했으며 대만의 AU옵트로닉스, CMO를 비롯하여 샤프(SHARP)와도 수출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세계 5대

LCD 메이저 생산업체에 모두 제품이 공급될 전망이다.

뷰웍스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만 산업용 카메라 부문에서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실적을 초과하는 37억원을 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54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수출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목표물량의 40%를 수출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세코닉스

디스플레이용 광학소자 관련 특허 취득

세코닉스(대표·박원희)는 광분포의 균일화를 기한 디스플레이용 광학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특허는 2006년 3월16일 취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LCD의 충분한 광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CCFL이나 LED를 배열(array)하는 직하형 BLU를 적용하는데 이번 특허는 어레이 되어 있는 광원의 광 균일화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장의 확산판 및 확산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확산판의 구조와 제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를 대형LCD TV 중 CCFL이나 LED를 사용하는 직하형 BLU 확산판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올림푸스한국(주)

내시경, 종합·대학병원 90% 이상 점유

올림푸스한국(대표·방일석)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업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현재 국내 종합·대학병원에서의 올림푸스 내시경 장비 보급률이 90%를 넘었다고 발표

했다.

지난 2004년 7월 출범한 올림푸스 한국의 의료사업부는 설립 5년 만에 4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종합/대학병원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개인병원, 내시경전문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도 장비고급화, 고성능화 추세가 지속되어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중 올림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첨단 기술인 NBI(Narrow Band Imaging; 협대역 화상 강화 기술)이 적용된 루세라 스펙트럼은 최근 대형 병원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의료 장비로 손꼽힌다.

루세라 스펙트럼에 적용된 NBI 기술은 파장에 따라 빛이 조직에 침투되는 깊이가 달라지는 특성과 혈관속 헤모글로빈의 파장별 흡수 특성을 이용해 검진 부위에 파랑, 초록의 두 파장 대역을 가진 광선을 보내 혈관을 더욱 선명하게 해 주는 기술이다. 올림푸스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현재 식도, 위, 대장 등에서 발견되는 조기 미세 병변 진단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재영솔루텍(주)

삼성 전략 스마트폰에 잇따라 부품 공급

재영솔루텍(대표 · 김학권)은 지난 6월 초부터 5M VCM 카메라 AF 모듈을 삼성광통신을 통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재영솔루텍에서 공급하는 500만 화소 VCM 카메라 AF 모듈을 탑재하고 그 밖에도 1Ghz 프로세서와 512MB RAM, 4인치 슈퍼 아몰레드(AMOLED) 액정에 내장형 DMB모듈과 안테나 등의 강점을 내세워 아이폰의 대항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

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우태주 부회장, 제2회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수상



▶ 지난 6월 22일 전쟁기념관 무궁화 홀에서 진행된 제2회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연합타임즈(대표 · 신유술)와 SYB소비자연합방송이 주최하고 소비자연합타임즈 시상선정위원회, (재)국제전문가교류협회가 주관한 제2회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이슈 창간 4주년과 소비자연합타임즈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행사는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 통합과 위대한 감동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주최측은 제2회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의 수상자는 국내외 전문가와 네티즌의 추천을 받아 소비자연합타임즈 시상선정위원회가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2회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시상식은 수상자와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전쟁기념관 무궁화 홀에서 개최되었다.

'Photokina 2010' 참가업체 업무협의회 개최

오는 9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Photokina 2010의 개최를 앞두고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협의회가 지난 6월 29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참가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이상현 과장의 진행으로 운송사 및 여행사 선정, 한국관 부스 설치 및 기타 전시 준비 과정, 전시 기간 중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업체측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년마다 열리는 Photokin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진영상기자재전으로

오는 9월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시회 전반업무의 행정을 지원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국업체 17개사와 총 27개 부스(319.75㎡) 규모의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 지난 6월29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의실에서 'Photokina 2010' 참가업체 간담회가 열렸다.

■ 최근 전시회 개최 현황

개최 년도	실개최면적 (단위)	참가국 수	전시회 전체 참가기업			참관객(만 명)		
			독일국내	해외	총계	독일국내	해외	총계
2006	230,000	46	550	1,029	1,579	118,619	43,873	162,492
2008	210,000	47	486	886	1,372	119,135	49,984	169,119

는 제품이다.

재영솔루텍은 갤럭시S에 이어 바다폰(웨이브)에도 카메라 자동초점(AF)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 역시 삼성광통신을 통해 5M 보이스코일모터(VCM) AF를 삼성전자 바다폰에 공급한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에 잇따라 제품이 적용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영솔루텍의 매출 증가세가 기대된다. 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비구면 유리렌즈, 카메라 AF모듈 등 광학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재영솔루텍의 카메라 AF모듈은 기존 엔코더 타입에 비해 원가경쟁력 및 구동성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재영솔루텍은 초정밀 금형 전문업체로 전자부품,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휴대폰 카메라 AF 모듈, 나노광학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주)KJ프리텍

블루레이용 광픽업 양산 공급

초정밀 광학부품 전문업체 KJ프리텍(대표·홍준기)이 '블루레이' 플레이어 핵심 부품인 '광픽업' 양산 공급에 성공했다.

KJ프리텍은 지난 5월 국내 한 업체에 블루레이용 광픽업을 양산공급하는데 성공하고 현재 월 20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 오는 3분기까지 월 50만개 안팎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국 후이저우 지역에 광픽업 생산라인을 마련, DVD용 제품을 월 20만개 정도 생산해왔다. 블루레이용 광픽업 양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연구개발·금형제작·렌즈가공·정밀사출까지 모두 자체기술로 처리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다. 광픽업은 레이저를 이용, 음성·화상·일반데이터 같은 정보를

CD·DVD·블루레이 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기록하는 부품이다. 전기적 신호를 광학신호로 변환해 정보를 쓰거나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블루레이용 광픽업의 경우 렌즈가공 등 초정밀 광학기술을 요하는 탓에 지금까지 소수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아직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오는 2013년 9300만대의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픽업 수요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루레이용 광픽업은 기존 DVD용 대비 시장 규모는 작지만 양산이 어려워 1개당 가격이 8~9배 정도 비싸다. 최근 세트 업체들이 블루레이 플레이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콘텐츠 업체들도 블루레이 기술을 이용한 영화·드라마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시장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회사 기존 주력사업인 중소형 LCD모듈용 백라이트유닛(BLU) 사업에도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활황에 힘입어 하이엔드급 제품 출하량이 늘고 있다. 현재 전체 BLU 생산량의 60% 이상이 스마트폰용 제품이다. KJ프리텍은 국내 BLU 업체로는 유일하게 품질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샤프·소니·가시오 등에 BLU를 양산공급 중이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우에노 야스아키 신임사장 선임



▶ 우에노 야스아키 신임사장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지난 6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우에노 야스아

키 일본 후지제록스 상품개발본부 OEM 영업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에노 야스아키 신임 사장은 일본 도쿄이과대학 경영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일본 후지제록스 본사에 입사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제록스 인터내셔널 파트너스에서 영업부를 총괄한 바 있다. 2008년부터는 일본 후지제록스 본사의 상품개발본부 OEM 영업부장으로 재직해왔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직장에서도 월드컵 열기 '후끈'



▶ 직장인들이 한국후지제록스가 마련한 월드컵 이벤트에 참가해 미니 축구게임을 즐기고 있다.

직장인들의 신바람 나는 회사생활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온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직장에서도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사내 임직원 및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900여명의 전 임직원에게 월드컵 티셔츠를 배포하고, 한국전이 열리는 날에는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전 사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전의 최종점수를 맞추는 '스코어를 맞춰라!' 이벤트, 본사 주변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미니 축구게임 이벤트를 벌여 직원들이

〈화제〉

**음성군, '평화의 탑' 조성 화제
서울광학산업(주) 이지웅 사장 제
안으로 추진**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평화의 탑'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성군 생극면은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응천공원 내에 평화의 탑을 건립하고 권영동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하여 6.2 지방선거 당선자,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화의 탑은 생극면 소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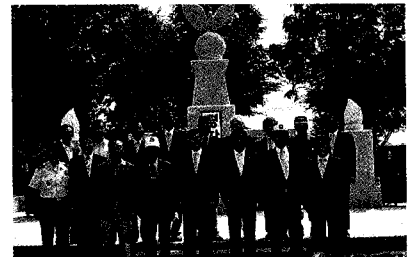
울광학산업 이지웅 사장이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체득한 고통의 상흔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화의 탑 조성을 제안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평화의 탑 건립에는 서울광학산업 이지웅 사장이 1천만원을, 생극중학교 허권 이사장이 5백만원을 후원하는 등 총 4,500만원이 투입됐다.

평화의 탑은 탑 중앙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양 옆으로 6.25 전쟁에 대한 소개와 평화에 대한 기원문을 게재했으며 탑 양 옆으로는 16개 참전국 및 의료·물자 지원국을 석재물에 표기하여 전쟁에 참여한 우방국가의 현

황을 소개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허금 생극면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점점 사라져가는 안보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건립하게 되었다”고 건립취지를 설명했다.



▶ 평화의 탑 제막식에서 이지웅 사장(윗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직장에서도 월드컵 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후지제록스 신상현 마케팅 실장은 “무채색의 정장이 아닌 붉은색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것 만으로도 사내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다”며 “이번 월드컵을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내 임직원 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이오테크닉스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300억 유치 레이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오테크닉스(대표·성규동)가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 4월 27일 칼라일 그룹스코리아 (Carlyle Growth Korea, L.L.C.)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2만3500원이고, 총배정주식은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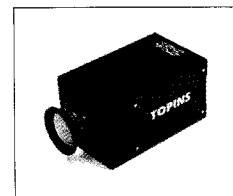
만6595주다.

칼라일 그룹스코리아는 칼라일 코리아가 이오테크닉스 투자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격이다.

이오테크닉스가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생산 장비가 쓰이는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누리며 따라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마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에 때문에 칼라일 측이 회사의 기술력과 업황 분위기를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최근 칼라일 측이 한국 기업에 다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주)토피스

열화상카메라(모델명 : TICA-K030) KCC, FCC, CE 인증 획득 광기구 및 광설계 전문회사인 토피



▶ 토피스에서 생산중인 개발·생산중인 열화상카메라

스(대표·김현규)가 개발·생산중인 열(온도)분포측정용 열화상카메라(모델명: TICA-K030)

가 국내에서 최초로 KCC(2010.6.9), FCC(2010.5.26) 및 CE(2010.5.25) 인증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하는 TICA-K030 모델에는 3개의 인증마크를 붙이게 되며, 토피스는 이 제품에 대해 국내(KCC) 판매 뿐만 아니라 미주시장(FCC)과 유럽시장(CE)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주)토피스

지능형 자동차용 나이트비전 시스템 핵심부품 개발에 착수

토피스(대표·김현규)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자

동차 개발사업”의 지원대상과제가 선정되어 핵심부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과제명은 지능형 차량 탑재 나이트비전 시스템 핵심부품 개발로서 삼성탈레스가 주관기관으로 하여 토핀스, 오카스,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토핀스 등은 올해 6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총 기간 33개월 동안 원적외선 영상기반 전방 안전 통합 나이트비전 시스템 개발을 맡는다.

광학인포메이션

기술표준원, 3D 표준화 로드맵 마련

3D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5대 분야별 표준화 전략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허경)은 지난 6월23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3D 입체영상산업의 국제표준화 선도 전략수립을 위한 ‘3D 표준화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지경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마련한 ‘3D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5대 3D 분야별 표준화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5년간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5대 분야는 3D 비디오(3D 영상부호화, 저작도구, 영상포맷, 화질평가, 시뮬레이션), 3D 디스플레이(화질평가, 광학부품, 신호처리부품의 신뢰성 등), 3D 콘텐츠응용(3D 인터랙션, 그래픽 콘텐츠 연동기반 영상 화질과 성능 측정), 3D영화(3D영화 촬영과 상영의 구현환경, 가이드라인, 성능평가), 3D휴먼팩터(휴먼팩터 평가방법, 요인별 인체 안전성 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가 표준화 기획단계서부터 참여해 협력 추진할 예정이며, 기표원에서 실무급 협력회의를 갖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 사업 31개 과제 확정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2일 ‘부품소재 신뢰성 상생협력 사업’의 올해 상반기 신규 과제로 국외 22개, 국내 9개 등 모두 31개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부품소재 신뢰성 사업은 수요기업이 제시한 신뢰성 기준을 충족시켜 해당 부품소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과제에는 삼성전기가 코스모텍 등 5개 부품소재기업 컨소시엄과 함께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할 ‘초슬림 드라이버 모듈의 신뢰성 향상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08년 우치다 등 13개 일본 수요기업이 참여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추진성도가 좋아 그해 수출목표 금액 347억원보다 26% 증가한 437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지원 사업비 41억5000만원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과학기술위 상설조직으로 개편...26개 출연연구 통합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과위에는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 처럼 예산, 인사, 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국과위 책임자는 관료 대신 전문 과학기술인을 앉혀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가적 연구개발을 주도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와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과위 산하 조직으로 통합된다. 연구소 규모를 대형화, 연구개발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이후 과학기술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온 ‘출연연구소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윤종용 삼성전자 고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3D 입체영상 뎀스 카메라 개발에 나선다

일반 카메라로 촬영해 3차원 입체영상을 만드는 3D 뎀스(Depth) 카메라가 2013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된다. 현재 HD급보다 4배 더 선명한 4K급 3D영상 처리 기술과 영상표시장치도 2012년까지 개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3D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3D영상의 생성과 재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7월중 수행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우선, 현 시점에서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용화 분야를 중심으로 2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 올해는 1차로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무안경 TV·홀로그래프 등 중장기적 미래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오는 10월에 수립되는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 과제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컬러 영상과 센서를 통해 측정된 깊이 정보를 합성해 3D영상을 생성하는 HD급 3D 뎀스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3D 뎀스 카메라는 컬러 영상과 깊이

정보로 다양한 시점에서 영상정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미래의 무안경 TV 시대 개막을 위한 필수 장비다. 기존 3D 카메라가 2개의 렌즈로 2장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이스라엘·일본·독일 등에서 HD급 3D 텡스 카메라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과제는 4K급 초고해상도 3D 영상 처리 기술과 영상표시 장치를 2012년까지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4K급은 HD에 비견되는 2K급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해상도를 실현한다. 따라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도 매우 선명하고 실감나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현재 디지털 시네마는 스크린 대형화에 따라 2K급(2048×1080 픽셀)에서 4K급(4096×2160 픽셀)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앞으로 5년 이내 4K급 3D 디지털 시네마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학이벤트

광주과학기술원, 세계 최대 규모의 엑스선 레이저 학회 개최



▶ 세계 최대 규모의 엑스선 레이저 학회가 지난 5월 3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엑스선 레이저 학회가 지난 5월 3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막돼 6월 4일까지 열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선우중호)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이인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한 엑스선 레이저 학회는 지난 1986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회째를 열리는 행사로 매 2년 마다 개최된다.

<부고>

한국광학회 명예회장 이상수 박사 별세



▶ 故 이상수 박사

한국광학회 명예회장이던 이상수 KAIST 명예교수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명예교수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 광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1989년 한국광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후 20여년간 원로이자 명예회장으로서 한국광학계와 세계속에서 한국광학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명예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Imperi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으며, 1964부터 1965년까지 Harvard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61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물리학 연구부를 이끌었으며, 196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되었다. 1970년에는 한국원자력청장을 역임했으며, KAIST 초대총장을 지냈다. 이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1981), 한국물리학회 회장(1979-1981), 한국광학회 회장(1989)을 역임하였고, 미국광학회와 영국물리학회회의 펠로우이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Optics의 부회장을 역임, 1989년부터 1995년까지 UN 대학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상훈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과 무궁화장, 성곡문화상, 인촌상, 미국광학회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파동광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양자광학, 레이저 스펙클라홀로그래피 등 다수가 있다.

세계적인 레이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엑스선 레이저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김광제 박사,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로카 교수, 일본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인 스프링-8의 이시가와 박사 등 14개국 120여명의 과학자가 참석했다. 엑스선 레이저 광원 기술 및 응용기술, 엑스선 광학소자 기술 및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엑스선 레이저 연구등 다양한 레이저 연구를 위한 초고출력 레이저 연구시설인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엑스선 레이저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초고출력 레

이저 시스템은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 조 와트 (1 페타와트·Petawatt) 출력의 초강력 레이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광학회, 하반기 학술발표회 개최 7월15일~16일, 부산 BEXCO에서

한국광학회의 2010년도 하계학술 발표회가 7월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된다. 이번 하계학술 발표회에서는 2010년도 의 광학워크숍 및 제1회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워크숍이 공동으로 개최된다.

문의 : 한국광학회 02-3452-6560